



이은애 | 이화여대 강사

## 1. 들어가는 말

스승이신 이경숙 교수님의 은퇴를 기념하는 구약논단에 부족한 글을 신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화여대 대학원에 들어간 1989년 첫 학기에 이경숙 교수님이 부임하여 오셨는데 학부 때까지 구약교수님이 없으셔서 구약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필자는 이경숙 교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대학원 첫 구약 수업인 “구약성서 신학연구” 세미나에서 필자는 출애굽기의 법규들에 대한 발제를 맡았는데 신약의 ‘복음’과 대비되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겼던 구약의 ‘율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윤리규범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지의 세계를 발견한 것 같은 흥분과 기쁨으로 필자는 구약성서를 전공으로 선택했다.

[www.kci.go.kr](http://www.kci.go.kr)

그 중에서도 구약성서의 법에 대한 관심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독일에서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까지 연결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 이경숙 교수님과과의 첫 만남이 필자의 인생방향을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귀국한 후에 필자의 구약성서 법에 대한 관심은 여성신학적 지평으로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이경숙 교수님의 연구에 자극과 도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의 주제 또한 구약성서의 이혼법(신 24:1-4)에 나타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관계와 이혼, 그리고 재혼 등을 재구성하여 보고 그것이 이후에 윤리적, 신학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와 권리 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결혼-이혼 관계 표상의 상징적 사용을 통한 이상적인 신뢰의 계약관계를 요구하는 성서기자의 의도 등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결혼의 모델은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창 2:24) 영원한 관계이며 지속적인 계약의 형태로 나타난다. ‘결합하다’ (קָיַם)는 계약용어이고 아담이 여자에 대하여 한 말인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는 계약의 맹세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결혼은 구약성서의 다른 본문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연결하는 영원한 계약의 형태로 나타나며(말 2:14; 잠 2:17)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관계에 대한 표상으로 사용된다(호 2:16-20; 사 54:5, 10). 이러한 결혼 이해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신명기의 이혼법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나타내는 당시의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혼 표상은 구약성서의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

1)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7), 377.



- 2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야웨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야웨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신 24:1-4)

구약성서 오경에 나타난 법규들의 양식은 크게 정언법(the apodictic law)와 결의론법(the casuistic law)으로 나누는데 신명기 24장 1-4절의 이혼법은 결의론법에 속하는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언법이 ‘..하라’는 명령이나 ‘..하지 말라’는 금지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 결의론법은 크게 사건을 나타내는 부분(protasis)과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나타내는 부분(apodosis)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건은 주로 ‘만약.. 하면’(if, when) 으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 ‘키(כי)’ 혹은 ‘임(אם)’으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묘사되고 사건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이 뒤따라 나온다. 때로는 그 뒤에 법의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절이 따라 나오기도 한다.<sup>5)</sup>

신명기 24장 1-4절에서는 1-3절이 사건설명에 해당되고 4절은 판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1-3절에서는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이혼당한 여자가 다시 재혼했으나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사건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과 이혼, 사별로 여자가 과부가 된 경우 등 복잡한 관계가 얽힌 경우를 가정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4절에서 그의 첫 번째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5) Albrecht Alt, "Die Ursprünge des israelitischen Rechts(1934)", A. Alt,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I* (München: C. H. Beck, 1968<sup>4</sup> ), 285-302. 구약성서의 법을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해 이스라엘 법의 기원을 설명하는 A. Alt는 결의론법 혹은 판례법의 기원을 고대 근동의 법 전통에 뿌리를 둔 가나안 법 전통에서 찾았다.

아내로 맞는 일이 금지된다는 판결이 따라 나온다. 4절 하반절은 상반절의 판결 ‘전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라’는 금지문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근거절이다. 그 이유로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고 이혼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야웨께 가증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는 땅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세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다.

신 24:1-4의 전체 구절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혼이 허용되는 제도였고 죄악시되지 않았으며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 후의 자유로운 재혼이나 또 다른 이혼도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자유와 권리는 제한되었고 또한 야웨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혼법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행해졌던 이혼의 이유와 절차를 추정해 볼 수 있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이해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판결의 이유와 근거절을 통해서 구약성서가 결혼과 이혼 관계를 윤리적, 신학적 측면으로 발전시켰는지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1) 이혼의 이유

신명기 24장 1절에서 남편은 아내를 두 가지 이유에서 내보낼(שלח)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와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경우이다.<sup>6)</sup> 그 ‘수치되는 일’(עֲרוֹתָּהּ רָבָה) 에르바트 다바르<sup>7)</sup>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어떤 것의 노출’(nakedness of a thing)이다. ‘에르바트(עֲרוֹתָּהּ)’는 구약성서의 다른 부분에서 사람의 극히 개인적인 부분, 즉 성기의 노출을 의미하며

6)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한글 성서 번역과는 달리 ‘그녀가 눈에 들지 않는다면(חַמְצָאִין בְּעֵינַיִן אֲלֵאסָּ)가 앞에 나오고 뒤이어 ‘그가 그녀의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רָבָה עֲרוֹתָּהּ)에 이르러(וְכִי)’이 따라 나와 두 구절이 서로 동의적 평행법을 이루며 ‘눈에 들지 않는다면’은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과 동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강성열 등, 『역사비평주석 신명기』(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출판부, 2004), 489-490.

벗겨지거나 드러내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는 것까지 포함하여 주로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sup>7)</sup> ‘다바르(דָּבָר)’는 여기서 ‘말씀’(word)이 아니라 ‘물건(thing), 일(matter)’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르바트 다바르’는 닫혀 있어야 하는 어떤 것이 열려지고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 24장 1절에서 이 단어가 여자인 아내와 연결되어 사용됨으로써 레위기 18:6-9; 20:11-21에 나오는 범죄사건의 표현인 ‘갈라 에르바(גָּלָה אֵבֶר/노출을 벗기다)’처럼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치되는 일’이 나타내는 이 불법적인 성관계에 ‘간음’을 포함시키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간음에는 사형형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레 20:10-18; 신 22:22).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 24장 1절의 ‘수치되는 일’은 간음보다는 약한 수위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보다는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성기 노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구약성서의 다른 본문에 의하면(호 2:4이하; 렘 3:8) 남편은 아내가 간음한 경우 아내를 제의적 법정 아래 세울 수도 있었으며 이혼을 할 수도 있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하지만 신명기 본문에서 이혼당한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다는 가정은 그의 ‘수치되는 일’이 사형에 해당되는 간음을 포함하는 일 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다. 하여간 이 ‘수치되는 일’은 아내에게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성적인 일로서 이혼의 직접적인 이유이며 객관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이유의 의미는 더욱 분명하지 않다.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다’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발견하

7) 이은애, “레위기 18장의 성관계 금지조항”, 『구약논단』 제 19집(2005), 54-60.

8)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392; Duane L. Christensen, 정일오 역, 『신명기(하)』 (서울: 솔로몬, 2007), 221.

9) Eckart Otto, *Theologisches Ethik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W. Kohlhammer, 1994), 54-55.

지 못한다면'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표현은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을 살펴본다면 아내가 남편의 눈에 들지 못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כִּי מֵצָא בָּהּ עֲרֹתָ רַבָּה קִי מַחַב בָּא עֵרְבָרַת דַּבָּר). 그러나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실제로 아내의 성격적인 부도덕뿐만 아니라 그를 싫어하는 모든 감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3절의 두 번째 이혼의 사유에서 아내를 '미워하는(קָנִיָּה)' 것과 동의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0)</sup> 즉,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내 쪽에서의 객관적이고 합당한 이유없는, 남편의 주관적인 이유로의 미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혼의 사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은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혼의 이유를 여자인 아내 편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아내 쪽의 잘못 없이도 남자인 남편의 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이혼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후대 유대교에서의 남성 중심적인 해석을<sup>11)</sup> 가능하게 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이유는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할 것이다. 이혼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와 영원한 약속의 파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 책임은 남편과 아내 둘 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10) 강성열 등, 『역사비평주석 신명기』, 491.

11) 유대교 할렐 학파에서는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 뿐 아니라 밥을 태우고 거리에서 외간 남자와 이야기하고 시부모를 욕하고 옆집에 다 들리도록 큰소리를 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으며 랍비 아키바는 남편이 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더 예쁜 여자가 있을 때는 전 부인을 내보내도 된다고 해석했다. 박경미, "예수께서 반이혼법을 제정하셨나?", in: 최만자/ 박경미, 『새 하늘, 새 땅, 새 여성』 (광주: 생활성서사, 1993), 132-133.

여성의 이혼권에 대해서는 구약성서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법에서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고 고대 근동 법의 공통적 문화권 안에 있는 구약성서의 법은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이혼의 절차

이혼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면 되기 때문이다(신 24:1,3; 사 50:1; 렘 3:8). ‘이혼증서’(כְּרִיתוֹת כֶּסֶף 세페르 케리투트)는 직역하면 ‘잘라내는 책’으로서 ‘케리타’(כְּרִיתָה 절단)는 본래 아내의 옷단이나 의복을 자르는 상징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이혼할 때 행하는 의식이였다.<sup>12)</sup> 이 이혼증서에는 아마도 이혼 선언양식인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네 남편이 아니다’(호 2:4)와 같은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혼의 과정 가운데 이혼증서를 쓰는 것은 이혼 사실을 드러내어 공적으로 사실임을 증명하게 하는 것으로 아마도 무분별하게 쉽게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인 장치였을 것이다.<sup>13)</sup>

이혼당한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혼증서는 더 이상 결혼한 상태가 아니며 이 후에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sup>14)</sup> 그녀는 비록 이혼을 당하기는 했지만 간음과 같은 중죄가 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가혹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며 그것 때문에 학대나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혼당한 여자가 이혼증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첫째 남편을 포함한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며 이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 할 수

12) Duane L. Christensen, 「신명기(하)」, 221.

13)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392.

14) 유대교의 랍비들은 성서의 본문을 근거로 이혼증서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392.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혼증서를 ‘아내의 손에 주는’ 것은 아내가 이혼문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명기에서 ‘손에 준다(נָתַן בְּיָדָהּ 나탄 베야드)’는 표현은 땅, 이방 왕들, 살인자, 성읍, 적군 등을 내어주어 소유하고 그에 관한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되었다(신 2:24, 30; 3:2, 3; 7:24; 19:12; 20:13; 21:10 등). 신명기 24장 1절에서도 이혼증서를 아내의 손에 줌으로써 그녀에게 결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후에 남편은 아내를 ‘그의 집에서 내보내는(פָּדוּת 살라흐)’ 것으로 이혼의 절차가 끝나게 되고 이혼이 성립된다. 여기서 사용된 פָּדוּת piel형은 신명기 법전에서 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을 6년 동안 일하게 한 후 일곱째 해에 내보낼 때(신 15:12-13)와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았다가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서 내보낼 때(신 21:14) 사용된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종이나 포로같이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집에서 내보냄(פָּדוּת 살라흐)으로써 ‘자유롭게 하고’(신 15:12-13) ‘마음대로 가게 하는’(신 21:14) 권리와 자유를 가지는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신명기 15장의 종의 경우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하게 줄 것을 명령하고 있어서 주인의 집에서 나갈지라도 다시 종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 포로의 경우에도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신 21:14)는 금지명령을 통해 그 집을 나가더라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됨을 추측해볼 수 있다. 신명기 24장의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를 그의 집에서 내보냄으로써 아내는 더 이상 그 남편에게 속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거나(신 22:15-16, 21)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재혼과 그 이후

신명기 24장 2-3절은 이혼한 여자가 첫 번째 남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후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 2절에서는 다른 구절들과 달리 여자가 주어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혼 후의 삶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주도적이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혼한 여자의 재혼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이혼이 재혼의 결격사유가 되었다는 어떤 암시도 나타나있지 않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두 가지 경우가 서술된다. 첫째는 그의 두 번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낸 경우이고 다음은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은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 신명기 24장 1절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이혼의 경우와 절차가 동일하다. 하지만 이혼의 이유를 설명하는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신명기 24장 2절에서는 두 번째 남편이 그를 ‘미워하여 (מִיָּוָה 사나)’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웨스트브룩(Raymond Westbrook)은 이 단어가 첫 번째 이혼의 이유인 ‘기뻐하지 않는 것’(신 24:1)과는 달리 어떤 객관적인 근거 없는 이혼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sup>15)</sup> 즉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아내 편에서의 합당한 이유 없이 남편의 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이혼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이혼이 아내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어떤 금전적 보상 없이 실행되는 반면, 두 번째 이혼은 남편의 변심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내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신명기 24장 1-4절에서 첫 번째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여자가 두 번째 이혼으로 얻은 재산으로 인해 첫 번째 남편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았다.<sup>16)</sup>

15) Raymond Westbrook, "The Prohibition of Restoration of Marriage in Deuteronomy 24,1-4" in: S. Japhet (ed.), *Studies in Bible* (Jerusalem: Magnes Press, 1986), 401-402, Deborah L. Ellens, *Women in the Sex Tests of Leviticus and Deuteronomy* (New York/ London: t & t clark, 2008), 241에서 재인용.

16) R. Westbrook, "The Prohibition of Restoration of Marriage in Deuteronomy 24,1-4" in: S.

반면, 데이비슨(Richard M. Davidson)은 웨스트브룩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다.<sup>17)</sup> 왜냐하면 이미 웨스트브룩이 고대 근동 자료들과 후기 유대교 자료들을 근거로 결론내린 것과 같이 ‘나는 나의 남편/아내를 미워한다’는 형태는 ‘나는 나의 남편/아내를 미워하여 이혼한다’는 보다 긴 형태의 요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워하다’는 1절의 ‘기뻐하지 않는다’와 동일한 의미로 이혼의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남편이 아내를 ‘미워한’ 결과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낸’(신 24:3) 것은 신명기 24장 1절의 이혼 절차와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1절에서와 같은 의미라고 보았다.

하지만 신명기 24장 3절이 1절과 다른 점은 두 번째 이혼과 함께 그 남편이 죽는 경우를 나란히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혼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죽음은 아내에게 또 다른 결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건이다. 이혼과는 달리 죽음은 불가항력적이지만 어떤 죽음인지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남편이 죽은 후에 홀로 남겨진 아내는 이혼당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4) 판결과 이유

사건이 세 절(신 24:1-3)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되는 반면,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아주 간단하게 내려진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그의 전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신 24:4a)는 것이다. 그 뒤에 ‘키’(כִּי, 왜냐하면)로 시작되는 이유절이 이어

---

Japhet (ed.), *Studies in Bible* (Jerusalem: Magnes Press, 1986), 387-405. Eckart Otto, "False Weights in the Scales of Biblical Justice?", in: Victor H. Matthews, Bernard M. Levinson and Tikva Frymer-Kensky (ed.), *Gender and Law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London/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137-138에서 재인용.

17)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394.

진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야웨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야웨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신 24:4b). 이미 4a절에 판결의 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의 이유는 모두 셋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기(התטמנה 후탐메아)’ 때문이다. 데이비슨은 후탐메아(התטמנה)를 טמא의 hotpaal형으로 보아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들었다’(she has been made/caused to defile herself)로 번역한다. 이 단어의 의미는 더러움의 원인을 첫 번째 남편에게서 찾게 하는데 즉, 첫 번째 남편이 여자를 그의 집에서 내보내어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마치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가 자신을 더럽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sup>18)</sup> 반면, 크리스텐센(Duane L. Christensen)은 그 ‘더러움’이 재혼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남편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여자의 문제를 가리킨다고 보았다.<sup>19)</sup> 그러나 데이비슨의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 남편과의 이혼 자체가 여자를 더럽게 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신명기 24장 1-4절의 이혼법은 이혼이나 재혼을 법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이 하나님의 의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드러내며 그것은 에덴에서의 영원한 결혼에 대한 이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sup>20)</sup> 그것은 크리스텐센의 견해보다 설득력있게 들린다.

두 번째 판결 이유는 ‘이 일은 야웨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증하다’(הונכה 토에바)는 레위기 18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간음에 대한 평가(레 18:22,26,27,29,30)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여자가 첫 남편과 이혼한 후 재혼한 것이 간음과 유사하다면 그 이전의 남편

18) 윗글, 395-396.

19) Duane L. Christensen, 「신명기(하)」, 221.

20)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397.

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훨씬 더 간음과 같다는 것이다.<sup>21)</sup> 레위기 18장에는 ‘더러움’(레 18:24,30), ‘가증한 일’(레 18:22,26,27,29,30), ‘땅을 더럽게/범죄하게 하는 것’(레 18:25, 27-28)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신 24:4 과는 본문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오경 마지막 편집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2)</sup> 재혼한 여자가 두 번째 남편과 다시 이혼하거나 그 남편이 죽은 후에 첫 번째 남편과 다시 결혼하는 일은 불법적인 간음행위와 마찬가지로 ‘가증한 일’이며 간음에 해당하는 벌, 즉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다. 또한 ‘야웨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는 설명은 법적인 판결이 아주 고대의 제의적 표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3)</sup>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이유가 야웨 종교의 순수성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적 사건 또한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판결 이유는 ‘그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적인 범죄와 땅의 오염의 밀접한 관계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레위기 18장에도 나온다. 레위기 18장 25절에는 그 앞에 열거된 성적인 범죄들로 인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남자와 재혼했던 여자가 첫 번째 남편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야웨 앞에서 ‘가증한 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성서에서는 살인과 성적인 범죄, 그리고 우상 숭배가 땅을 더럽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에서 성적인 도덕성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기둥들 중 하나인 것이다.<sup>24)</sup> 이혼한 여자가 첫 번째 남자와 재혼하는 문제가 하나님

21) Peter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6), 305.

22)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395.

23) Gerhard von Rad, *Deuteronomy* (London: SCM Press, 1979), 150.

24) Tikva Frymer-Kensky, "Deuteronomy" in: Carol A. Newsom and Sharon H. Ringe(ed.),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65.

주시는 땅의 순수성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녀의 결혼과 이혼, 재혼 등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민족 전체가 관련된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 5) 이혼법의 의미

위에서 언급한대로 신명기의 이혼법은 이혼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나 재혼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본문의 초점은 이혼당한 여자가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는 문제에 맞추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혼법’이라는 명칭이 그 본문에 적절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경의 법전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이혼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편의상 ‘이혼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명기의 이혼법의 목적은 그 법이 놓인 신명기 법전의 문맥에서 찾을 수 있다. 신명기 법전 안에서 이혼법은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를 상술하는 부분에 놓여있다.<sup>25)</sup> 신명기 24장 1-4절은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소지품이나 재산처럼 다루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이 법에서는 한 개인으로서 아내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시키려 한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아내를 내보냄으로써 여자를 더럽게 하며 그것은 비록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신명기 법전에서의 이혼법의 위치 또한 아내의 존엄성을 흠치는 것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보여준다.<sup>26)</sup>

이혼법의 바로 뒤에 놓인 징집 면제에 관한 법인 신명기 24장 5절은<sup>27)</sup>

25)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403.

26) 윗글.

27) Christensen은 신 24:1-5에 나타나는 두 법의 내용을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칭구조로 보았는데 ‘한 사람이 아내를 취하였으면’으로 시작하는 24:1과 24:5이 외부 틀을 이루고 그 구조의 중심부에는 ‘그리고 새 남편이 그녀와 이혼하거나 죽는다면’(신 24:3)이 위치하고

신명기 24장 1절과 동일한 조건절(protasis) ‘한 사람이 새롭게 아내를 취하였으면’(כִּי יִתָּקַח אִישׁ אִשָּׁה חֲדָשָׁה) 키 잇카 잇쉬 잇샤 하다샤)으로 시작 하는데 이것 또한 새로 결혼한 남자를 군대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아내’는 히브리어로 ‘잇샤 하다샤’(새 아내)인데 이것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신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8)</sup> 그렇게 새 아내를 맞은 남자는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직무도 맡지 않고 1년 동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아들을 낳기 위한 기간이었을 것이다.<sup>29)</sup> 또한 남편은 집에 머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어야(שִׂמַח בְּאִשְׁתּוֹ)’ 했는데 아내에게 결혼의 기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만족시키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신명기 24장 1절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는’ 결혼 관계로 시작하는 신명기 24장 5절에서는 즐겁고 만족스러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명기 24장 5절도 새롭게 아내 된 여자의 마땅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고대 근동법과의 비교

구약성서의 법은 고대 근동의 공통적인 법 문화라는 큰 틀 안에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에 관한 법 또한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고대 근동 법의 영향권 하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대 바빌론 법에서는 이혼을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이혼과 책임이 없는 이혼을

있다. Duane L. Christensen, 「신명기(하)」, 216.

28) 그것은 초혼이거나 재혼이거나 간에 새롭게 결혼하여 아내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은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함으로써 군복무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Jeffrey H. Tigay,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96), 220-221.

29) Duane L. Christensen, 「신명기(하)」, 222.

구분한다. 함무라비 법전 138-140조에서 아내가 책임이 없이 이혼하게 된다면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선물과 위자료를 주고 에쉬누나 법전 59조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의 전 재산을 갖게 된다고 규정한다.<sup>30)</sup> 즉 아내의 책임이 없는 경우 법은 첫 번째 결혼의 아내와 아이의 권리를 우선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의 집과 재산은 이혼 후에도 아내와 아이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자가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 없이 그냥 나가야 한다.

함무라비 법전 148, 149조에는 아내가 중병에 걸려서 결혼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경우 남편은 새로운 아내를 얻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아내를 내보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남편의 집에 머물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내가 다른 여자와 한 집에 살 마음이 없다면 남편으로부터 나갈 수 있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sup>31)</sup>

아내의 이혼할 권리에 대해서는 대립적 논쟁이 존재한다. G. R. Driver/J. C. Miles는 고대 바빌론에서는 아내에게 이혼할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A. van Praag는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다. 결혼증서에는 이혼 약관에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언급되지만, 점차 이혼하는 경우 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이혼 약관을 통해 아내의 이혼권이 무효화되었을 수 있다.<sup>32)</sup>

함무라비 법전 142조에서는 “아내가 그의 남편과 결혼생활을 계속하기를 원치 않는다면<sup>33)</sup> ‘너는 나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한 후 친척들에 의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녀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남편은 집밖으로 나돌며 간통을 행했다면 이 아내는 책임이 없고 따라서 그녀는 지참금을 받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 법은 결혼

30) Eckart Otto, *Theologisches Ethik des Alten Testaments*, 55.

31) 윗글, 55-56.

32) 윗글, 56.

33) 문자적으로는 ‘그를 미워한다면’

한 아내의 이혼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혼에 관한 성서의 법규는 고대 근동의 법에 비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4)</sup> 첫 번째는 여성이 계속 결혼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기 앗수르 법에 의하면 강간범은 그의 본래 아내를 다른 사람이 강간하도록 넘겨주어야 하고 뒤에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한다면 그가 강간한 여자와 결혼해야 했고 그녀에게 처녀에게 주는 신부값을 지불해야 했으며 그와 이혼해서는 안되었다(MAL A 55조). 그러나 그와 유사한 성서의 법(신 22:28-29)에는 ‘강간에는 강간’ 혹은 강간범의 원래 아내를 데려오는 처벌은 없다. 성서의 법은 여성의 존엄성을 높이는데 그녀가 강간범의 아내일지라도 그의 남편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신명기 22장 13-19절에서처럼 남편의 고발이 무고임이 밝혀진 후에도 아내는 그녀의 남편과의 결혼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성서에서 여성은 계속 결혼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측면은 여자가 다시 재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명기 25장 5-9절의 시형제 결혼에서 보면 모든 과부들에게 다시 재혼할 권리가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시형제 결혼은 고대 근동 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구약성서의 법에서는 또한 이혼한 여자도 그녀가 이혼 증서를 가졌다면 다시 결혼할 수 있었다. 이혼증서를 써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에 유일한 것이고 이혼 증서를 가졌다는 것은 다시 재혼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대 근동 법에서는 아내를 거부했던 남자가 5년 뒤에는 그녀를 되찾아 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더라도 말이다. 반면 성서의 법은(신 24:1-4) 이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후에 첫 번째 남편과 다시

---

34)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387-388.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은 고대 근동법 체계에서는 몇몇 특권계층의 여자들의 권리였지만 성서에서는 모든 이혼하는 여자에게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이혼의 의미 확대 – 신학적, 윤리적 관점으로 확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이혼은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유와 상징으로도 나타난다. 호세아 2장에서 이스라엘과 그의 하나님 야웨 사이의 관계는 결혼관계로 묘사되었고<sup>35)</sup> 한쪽이 다른 한쪽을 잊거나 배반하는 것은 간음이며 이혼을 유발하기 때문에<sup>36)</sup> 이스라엘은 야웨에 대해 신실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혼의 의미를 언약관계와 신실의 관계로 보는 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예언서에서 이러한 결혼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BC 722년 북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시기로부터 유래했을 것이다.<sup>38)</sup>

호세아 2장 2a절에 나타나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예언자의 선언이 야웨가 이스라엘에게 이혼을 선언한 것인지 질문할 수 있다. 다스(Maria Dass)는 고대 근동과 제 2 성전시대의 결혼과 이혼 형식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바탕으로 호세아 2장 2a절의 형식이 이혼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무효화하는 형식이라고 주장한

35) 예언자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의 관계는 야웨 하나님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유비하는데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성적인 대립구도를 사용하고 결혼을 깨뜨리는 이유가 되는 간음(Ehebruch)을 의미하는 ‘제나(זָנָה)’, ‘나아프(נָאֵף)’ 동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규정한다. Marie-Theres Wacker, *Figurationen des Weiblichen im Hosea-Buch* (Freiburg: Herder, 1996), 60–62.

36) 이경숙, “호세아서에 나타난 야웨, 바알, 아스다롯?”, in: 이경숙, 「구약성서의 하나님. 역사, 여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87.

37) Eckart Otto, *Theologisches Ethik des Alten Testaments*, 56.

38) Gerlinde Baumann, "Die Metapher der Ehe für das Verhältnis JHWH-Israel in den alttestamentlichen Prophetenbüchern – (nicht nur) feministisch-kritisch betrachtet", in: Manfead Oeming(Hg.), *Theologie des AT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Münster/Hamburg/London: LIT Verlag, 2003), 174–176.

다. 이것을 다스는 ‘별거의 형식’이라고 불렀는데 그 형식 자체는 법적 이혼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이전의 것이거나 법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관계의 일시적인 중단이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었다.<sup>39)</sup> 다스의 이러한 해석은 호세아 2장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설득력이 있다. 호세아 예언자는 그의 아내 고멜과 이혼하지 않았고(호 2:14 이하) 야웨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기 때 문이다(사 50:1). 그러나 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호 4:17)는 명백히 이혼을 나타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호 11:8)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렘 3:8).

예레미야서에서는 앞에서 다룬 신명기의 이혼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예언자의 언급이 나온다. 예레미야 2장에서 야웨와 이스라엘은 인애와 사랑에 근거한 결혼관계로 설명된다(렘 2:1-3).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악과 반역을 행하여 성실을 깨뜨렸기에 야웨에 의해 고발당하고 심판이 예고된다(렘 2:9-37). 바로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3장 1-5절에도 야웨와의 관계에서 유다의 성실하지 못함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데 예레미야 3장 1절은 신명기 24장 1-4절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야웨의 말씀이니라’(렘 3:1)

여기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물론 그의 청중들도 신명기 24장 1-4절의 법규를 이미 알고 있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

39)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410.

나 신명기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규칙은 예레미야서에 오면 야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적 관계를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신명기에서 다른 남자와 재혼했던 여자가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야웨와의 신실한 계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섬기던 유다 백성이 온갖 음행과 악행을 저지르면서도<sup>40)</sup> 야웨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렘 3:2-5). 엘렌스(Deborah L. Ellens)는 이 본문의 핵심이 음행한 여자인 유다가 첫 번째 남편인 야웨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아무런 불법적인 일, 잘못된 일은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sup>41)</sup>

이런 점에서 유다 백성의 상황은 신명기의 율법에서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 신명기에서는 이혼한 여자가 합법적으로 재혼했다가 돌아오는 것이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직 야웨와의 결혼 관계에 있는 유다가 자발적으로 부정을 행했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의 행음은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종교 혼합적 행위 뿐 만 아니라 바알신 숭배의식에 수반되는 실제적인 성적 음란행위들을 포함한다.<sup>42)</sup> 신명기의 법에서 이혼하고 재혼한 아내가 첫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금지되는 규정을 예레미야서에서는 행음한 유다가 야웨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sup>43)</sup>을 보여주는 상징 도구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야웨와 이스라엘 간의 영원한 계약이 이스라엘의 행음함으로 깨

40) '길가에서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리는(렘 3:2)' 신실하지 못한 아내의 모습은 바알 제의와 함께 렘 2:36에서 비난하고 있는 정치적 동맹을 암시하기도 한다. Robert P. Carroll, *Jeremiah 1-25*,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6), 142.

41) Deborah L. Ellens, *Women in the Sex Texts of Leviticus and Deuteronomy* (New York/ London: t & t clark, 2008), 244.

42) 차준희, 「예레미야서 다시보기」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7), 48-50.

43) 유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불가능함은(렘 3:1-5) 4장에서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렘 4:1-2)는 야웨의 대답으로 다시 가능하게 된다. 유다의 진정한 회개로 인해 다시 야웨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John Bright, *Jeremiah*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5), 25.

어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후에 ‘이혼’은 또 다른 윤리적, 신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데 그것은 포로 후기 말라기 예언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말 2:10-16). 말라기의 연대는 에스라-느헤미야 시대 즉, BC 5세기 중반으로 보며(말 3:5// 느 5:1-13; 말 1:6-14; 느 10:32-39; 말 3:8-12// 느 10:37-39) 또한 신명기의 언어와 사상과 아주 유사할 뿐만 아니라<sup>44)</sup> 제사장 문서(P)와 다른 오경 자료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라기 2장 10-16절은 유다의 상류계층이 사회적 출세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방 여자와 쉽게 결혼하고<sup>45)</sup> 어려서 결혼한 유대인 아내와 이혼하는 것에 대해 비난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종교적, 제의적 이유 때문에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해 왔다. 그런데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야웨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는 까닭을 물었고(말 2:13) 그 물음에 대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야웨 하나님은 증인이 되시기 때문’(말 2:14)이라고 대답한다. 여기에서 결혼의 계약적 성격이 나타난다. 이 본문의 중심에는 그 남편이 그의 젊을 때의 아내에 신실해야 한다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그런데 그와 이혼하는 것은 배신이요 거짓이라고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어려서 맞이한 짝인 아내에게 거짓, 즉 배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한다(말 2: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다(말 2:16).

44)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사랑(신 7:7-8// 말 1:2); 아버지-아들 관계(신 1:21//말 1:6; 2:10; 3:17); 야웨의 이름(신 12:5// 말 1:6, 14; 2:2,5; 3:16; 4:2) 유일신관(신 6:4//말 2:15); 십일조(신 18:1-8//말 3:10) 제사장보다 레위인의 위상 부각(신 21:5; 33:10) 등. 우택주, 「새로운 예언서 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사, 2009), 329-330.

45)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의 남자들은 포로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많았고 말라기는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Jacob M. Myers, *The World of the Restoration* (Engel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98.

46) Gordon P. Hugenberg, *Marriage as a Covenant: Biblical Law and Ethics as Developed from Malachi*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27-47. Eckart Otto, *Theologisches Ethik des Alten Testaments*, 56에서 재인용.

특히 말라기 2장 16절은 이혼을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는 신명기의 이혼법(신 24:1-4)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웨스트브룩은 신명기에서 는 이유가 있는 합당한 이혼을 말하는 반면, 말라기에서 야웨가 미워하는 이혼은 단지 싫다는 이유에서 하는 합당하지 않은 이혼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구분했다.<sup>47)</sup> 그러나 데이비슨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이유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모든 이혼을 하나님 이 미워하시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up>48)</sup> 비록 이혼이 허용되고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이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평가는 신학적 측면으로 확대된다. 말라기 2장 11절은 유다가 야웨의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고 고발하고 있다. 여기서 ‘이방 신의 딸’은 이방 여인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방의 우상 혹은 여신 아세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제의적 혹은 모형론적 해석이 가능하다.<sup>49)</sup> 그렇게 본다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야웨와의 언약 종교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방 신의 딸과의 결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성을 평가하는 윤리적 기준이 되었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말 2:15)는 것은 야웨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요구하는 명령이 된다.

## 5. 나가는 말

이혼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근거로 한다.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이혼은 계약의 파괴를 의미한다. 구약

47) Raymond Westbrook, "The Prohibition on Restoration of marriage in Deuteronomy 24:1-4", 402-403.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419에서 재인용.

48) Richard M. Davidson,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420.

49) Ralph L. Smith, 채천석/채훈 역, 「미가-말라기」, WBC 32 (서울: 솔로몬, 2001), 457.

성서의 법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결혼관계가 깨어지는 이혼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성서의 본문들은 남편 쪽에서 주도적인 이혼에 대해 언급하지만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과 비교해 볼 때 아내의 이혼권도 가능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이혼의 과정 가운데 이혼증서를 쓰는 것으로써 이혼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소유한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인 제도와 관습이 이혼을 합법화하고 이혼 후의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언서에서 결혼이 야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상징도구로 사용되면서 이혼은 그 언약관계의 파괴로 이해되었다. 그 언약관계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음행하는 아내로 그려졌으며 따라서 결혼의 언약관계가 깨어지고 이혼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질투하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에게만 신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른 신들을 좇아 섬기는 불신실한 아내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혼이 아니라 재결합을 원하신다 (호 2; 렘 3-4).

결혼-이혼 개념이 법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결혼은 단순히 자손을 많이 낳아서 생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부장적 목적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동등한 계약관계임을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이성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되’는 이상적인 결혼관계<sup>50)</sup>의 현실적 모습인 것이다.

50) 이은애, “구약성서의 결혼법 이해”, in: 김성재/ 이경숙 편, 성서, 여성,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63-65.

## 6. 참고문헌

- 강성열 등, 「역사비평주석 신명기」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출판부, 2004).
- 우택주, 「새로운 예언서 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사, 2009).
- 이경숙, 「구약성서의 하나님. 역사. 여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이은애, 「구약성서의 결혼법 이해」, 김성재/이경숙 편, 「성서. 여성.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53-65.
- \_\_\_\_\_, 「레위기 18장의 성관계 금지조항」, 「구약논단」 제 19집(2005), 53-72.
- 차준희, 「예레미야서 다시보기」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7).
- 최만자/박경미, 「새 하늘. 새 땅. 새 여성」 (광주: 생활성서사, 1993).
- Alt, Albrecht “Die Ursprünge des israelitischen Rechts(1934)”, A. Alt,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I* (München: C. H. Beck, 1968<sup>4</sup>), 278-332.
- Baumann, Gerlinde, “Die Metapher der Ehe für das Verhältnis JHWH-Israel in den alttestamentlichen Prophetenbüchern - (nicht nur) feministisch-kritisch betrachtet”, in: Manfead Oeming(Hg.), *Theologie des AT aus der Perspektive von Frauen* (Münster/Hamburg/London: LIT Verlag, 2003), 173-177.
- Bright, John, *Jeremiah*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5).
- Carroll, Robert P., *Jeremiah 1-25*,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6).
- Christensen, Duane L., 정일오 역, 「신명기(하)」 (서울: 솔로몬, 2007).
- Craigie, Peter C.,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6).

- Davidson, Richard M., *Flame of Yahweh -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7).
- Ellens, Deborah L., *Women in the Sex Texts of Leviticus and Deuteronomy* (New York/ London: t & t clark, 2008).
- Myers, Jacob M., *The World of the Restoration* (Engel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 Otto, Eckart, *Theologisches Ethik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W. Kohlhammer, 1994).
- \_\_\_\_\_, “False Weights in the Scales of Biblical Justice?”, in: Victor H. Mattews, Bernard M. Levinson and Tikva Frymer-Kensky (ed.), *Gender and Law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London/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 Smith, Ralph L., 채천석/ 채훈 역, 「미가-말라기」, WBC 32 (서울: 솔로몬, 2001).
- Tigay, Jeffrey H.,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96).
- von Rad, Gerhard, *Deuteronomy* (London: SCM Press, 1979).
- Wacker, Marie-Theres, *Figurationen des Weiblichen im Hosea-Buch* (Freiburg: Herder, 1996).
- Westbrook, Raymond, “The Prohibition on Restoration of marriage in Deuteronomy 24:1-4” in: Sara Japhet(ed.), *Studies in Bible* (Jerusalem: Magnes, 1986), 387-405.

검색어

이혼법

이혼

재혼

계약

불성실

## Divorce in the Old Testament: Breaking the permanent covenant?

Eun-Ae Lee

Lecturer at Ewha Womans University

München Universität Dr. Theol.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nderstanding of divorce in the Old Testament. This study applies a historical-critical method from a feministic perspective of the so-called ‘divorce law’ in Deuteronomy(Deut 24:1-4) and other texts that deal with the concept of ‘divorce’. Divorce refers to the end of a marriage relationship. In the Old Testament, marriage is often regarded as a covenant between husband and wife. In Genesis, marriage is a permanent covenant commanded by God(Gen 2:23).

The purpose of the ‘divorce law’(Deut 24:1-4) is to forbid a woman's former husband to take her back to be his wife. Nevertheless, the text shows that divorce, like marriage, is possible in ancient Israelite society, and that the reasons for the divorce can be founded not only in a wife's sexual

fault, but also in the change of heart of the husband. The woman with a ‘certificate of divorce’ was allowed to remarry another man. However, reunion with her former husband is explained as an abomination before God and as an act to bring sin upon the land. The legal institutions of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are interpreted now in terms of their cultic and theological meanings.

In prophetic texts such as Hosea, Jeremiah, and Malachi, the marriage-divorce formula is used as a symbol to indicate the covenantal relationship between Yahweh and Israel. The adultery of Judah as a wife caused a breaking of the covenant, namely divorce with her husband Yahweh. However, God wants only the faithfulness of Israel. Malachi gives the Israelite living in the postexilic period the warning against divorcing his Jewish wife to marry a pagan wife. The concept of ‘divorce’ is discussed beyond the dimension of the legislation within the theological and ethical dimensions.

## Key words

Divorce law

Divorce

Marriage

Remarriage

Covenant

Faithless

- 투고일: 2013년 7월 01일
- 심사일: 2013년 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05일

[www.kci.go.kr](http://www.kci.go.kr)